

1. ① 2. ⑤ 3. ⑤ 4. ④ 5. ⑤ 6. ① 7. ③ 8. ② 9. ①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② 15. ④ 16. ② 17. ⑤ 18. ⑤ 19. ④ 20. ②

1. 윤리학의 근본 과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나’는 덕 윤리의 입장에서 윤리학의 과제가 유덕한 품성을 갖추어 이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입장에서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만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에 있어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중시한다.
③ 덕 윤리는 도덕적 판단과 실천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덕 윤리는 규범 윤리학에 속하며, 윤리학의 근본 과제로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 아닌 기술 윤리학이다.
⑤ 윤리학의 근본 과제로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 아닌 메타 윤리학이다.

2. 도덕과 종교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도덕의 최종 근거는 오류 없는 완전한 존재인 신의 명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을은 신의 명령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 을은 도덕의 최종 근거를 신의 명령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은 도덕의 최종 근거가 신의 명령이므로 도덕적 의무가 이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인간의 판단 역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을은 윤리적 판단은 신의 명령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옳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인식할 때 가능하므로, 이를 인식하도록 해 주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
④ 을은 인간의 이성 능력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3.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시민의 의사를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하며, 이럴 때만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토론의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 ②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 ③ 하버마스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물음이나 질문에 그 어떤 금기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결과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하버마스에 따르면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공적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공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죽음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죽음에 대한 유교 사상의 입장이며, (나)는 죽음에 대한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즉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한편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 (나)는 죽음을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죽음을 기가 흩어지는 것으로 본 것은 유교 사상이 아닌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 ㄷ. 죽음을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으로 파악한 것은 도가 사상이 아닌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5. 성(性)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성과 사랑의 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이고, 을은 성과 결혼은 별개의 것으로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중도주의의 입장이다. 한편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은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갑은 결혼 제도를 통해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인류 존속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성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랑이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불리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할당제는 부당하다고 본다. 한편 병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을은 대학 입학 할당제는 교육 환경과 같은 학업 능력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입학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 ③ 병은 대학 입학 할당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갑은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육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며, 을은 교육 환경이 아닌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대학 입학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학업 능력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지만, 병은 개인의 학업 능력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7. 유교 사상의 형제자매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仁]하며, 자신의 입장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다. (나)의 ㉠은 손과 발처럼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手足之義]를 의미하므로 ‘형제자매’이다. 유교에서 형제자매는 한 부모 아래 태어난 동기간으로서 서로 간에 형우제공(兄友弟恭), 즉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를 베풀며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므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형제자매는 동기간이므로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 ④ 형제자매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선택적 관계라고 볼 수 없다.
- ⑤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이다.

8.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행위로서 공개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폭력적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처벌까지 감수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그로 인한 처벌까지 감수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 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9.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정의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고,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갑은 동물을 단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해도 된다고 보았으며, 을은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을 지니므로 생명이 있는 모든 개체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테일러는 모든 개별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유의 선을 지닌다고 보았다.
- ㄹ.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과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0. 정보 사유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개인의 노동이 투입된 산물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됨으로써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으로 발표할지 고민하고 있는 A에게,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갔으므로 창작자의 배타적 소유권

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제시문에서는 사회 전체의 공리 극대화가 아닌 노동을 투입한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강조한다.
- ③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은 공유가 아닌 사유(私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제시문으로부터 지적 재산의 가치가 창작자의 노력, 즉 개인의 노동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 ⑤ 제시문에서는 노동의 형태에 상관없이 인간의 노동을 통한 산물은 노력한 개인의 소유이므로, 무형의 정신노동이 들어간 지적 재산 역시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분배적 정의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갯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벤담, 병은 롤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았으며,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였고, 롤스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갯은 분배적 정의는 인간의 가치에 비례하는 평등이므로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을은 정의로운 분배는 최대의 만족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병은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였으므로 갯, 을, 병은 모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갯, 을, 병은 모두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고 볼 것이다.

12. 안락사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갯은 인위적 개입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모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 갯의 입장에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갑은 적극적 안락사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을은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고 본다.

13. 맹자의 직업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동양의 유교 사상가인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직업 활동을 통해 인간은 타고난 선한 본성을 지키고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활동이 자신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해하고, 선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직업을 통해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므로 직업은 생계유지 차원에서조차 중요성을 지닌다.
② 유교 사상에서는 자신이 맡은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제시문에서 맹자는 경제적 보상을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더불어 직업이 인격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시하였다.
⑤ 유교 사상에서는 직업 생활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현대 소비 사회의 문제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 보드리야르의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현대 사회의 소비 행태가 제품이 지닌 기호, 즉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현대 소비 사회는 사람들의 감성과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제품 자체의 실용성보다는 제품이 상징하는 이미지나 환상에 이끌려 소비를 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이러한 소비 욕구를 발생시키는 생산 질서가 의도하는 대로 소비하게 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부정의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소비의 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과시하려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④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상품의 기호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보드리야르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품의 기호와 이미지가 전달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5. 평화와 전쟁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갈통, 을은 왈처이다. 갈통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중시하였다. 왈처는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시작,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왈처는 전쟁 개시에서의 정의의 영역과 전쟁 과정에서의 정의의 영역을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개전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은 정의롭게 이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갈통에 따르면 평화를 위해서는 폭력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평화 실현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② 갈통에 따르면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전쟁의 종식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할 수는 없다.

③ 왈처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왈처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의 인권 보호 및 회복과 적국의 침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16.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기존의 윤리가 인간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즉 인류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와 생태계 전체를 책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요나스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현 세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세대 간 책임이 호혜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볼 수 없다.

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성과보다는 과학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중시하였다.

17. 사형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갇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자로서 사회 계약의 목적 중에는 생명 보존이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로서 시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역시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으며 형벌은 지속성을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는 보는 칸트의 응보주의적 입장이 담긴 질문에 대해서는 두 사상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베카리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논하였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갇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베카리아는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사형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베카리아는 자신을 죽일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8.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갇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전 지구적인 의무로 보았다.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롤스는 비록 가난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경우에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 원조 대상자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② 싱어는 고통 감소와 쾌락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국가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므로, 해외 원조에서는 일정한 차단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국가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이 그러한 상이한 수준을 조정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19.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이해

정답 해설 : 갑, 을은 모두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유전자 치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유전자 치료 가운데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생식선 치료는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생식선 치료의 허용 여부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에 포함된다고 본다.

② 갑, 을은 모두 유전자 치료가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③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후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생식선 치료가 후세대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의 허용 여부가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없다.

20. 관용의 역설과 한계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제한적 관용은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불관용함으로써 관용에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문의 입장에서는 <가상 대담> 속 리포터가 말한 사례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므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문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이 아닌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③ 신체의 자유나 교육 받을 권리는 모두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제시문에 따르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제시문에서는 종교의 전통과 같은 문화적 차이가 인정될 수 있는 한계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이다. <가상 대담> 속 사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제시문에 따르면 <가상 대담> 속 사례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